

# 일본의 건강증진 정책의 방향

이 정 수

동경대학대학원 의학계연구과 공공건강의학전공  
건강증진과학분야(jslee@m.u-tokyo.ac.jp)

일본에서는 현재,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Life-style related diseases(생활습관병)의 예방이 건강증진 정책상의 가장 큰 과제로 되어 있다. 생활습관병은 환자수, 사망수, 의료비, 질병의 후유증 등으로 인한 QOL의 저하 등 사회적 부담도 가장 큰 질병이다. 과거 생활습관병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강증진 정책은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객관적인 수치 평가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금후의 생활습관병 대책 추진에 관한 새로운 방향성과 함께 의료제도 개혁의 골자가 2005년에 제시되었다. 현행의 의료보험 제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증가의 억제가 필요하고,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한 의료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생활습관병 대책이 최우선 순위로 되었다.

2006년 의료개혁 관련 법안이 제정됨으로써, 새로운 생활습관병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새로운 생활습관병 대책의 특징은, 2006년에 제정된 "u고령자의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v에 의하여, 2008년4월1일 부터 의료 보험자는 Metabolic Syndrome의 개념을 도입한 "u특정검진"v과 "u특정보건지도"v를 피부양자를 포함한 가입자에게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 된 점이다. 또한, Metabolic Syndrome이 생활습관병의 위험인자(Risk Factor)로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왔다는 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지표가 된다는 점 등을 전략의 중점으로 두고, 과거의 건강증진 정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1차 예방과 2차 예방 전략을 동시에 전개한다는 점 등이다.

새로운 생활습관병 대책에 맞추어, 지금까지의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 행정기관(시읍면)에 의한 검진과 보건지도 "u노인 보건법에 의한 기본검진"v, 노동자를 위한 사업자에 의한 검진과 보건지도 "u노동 안전 위생법에 의한 일반검진"v의 전체가 통합 / 조절되었다.

"u특정 검진"v은 검진 수진자의 리스크를, Metabolic Syndrome기준에 의거하여

판정하는 검진으로, 보건지도를 위하여 수진자를 3단계로 분류 층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특정 보건지도"v는 리스크별로 분류된 대상자에게 층별화된 보건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보건지도의 기본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생활습관 행동의 변용이고, 생활습관 행동의 변용에 의해 각종 검사치의 개선을 도모하여, Metabolic Syndrome에 해당하는 자와 Metabolic Syndrome의 예비군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결과적으로 생활습관병의 발병을 예방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국가가 제시한 전국 목표는, 2015년의 특정 검진 실시율 80%, 특정 보건지도 실시율60% 와 함께, Metabolic Syndrome해당자 및 예비군의 감소율을 2008년과 비교하여 25%감소라는 달성 수치 목표가 설정되고, 이 목표치를 감안한 2012년 목표치가 설정되었다.

이와 같이 제시된 전국 수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의료 보험자별 특성을 감안한 조절 목표가 설정되어, 특정 검진 실시율, 특정 보건지도 실시율과 함께 Metabolic Syndrome해당자 및 예비군의 감소율의 달성 수치가 평가 대상으로 되어, 5년후인 2013년부터 매년도, 각 의료 보험자에의 후기 고령자 의료 지원금의 가산과 감산이 시작된다.

2008년은 새로운 건강증진 정책이 시작된 원년으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제의 평가는 아직 시기가 빠르나, 1차 예방과 2차 예방 전략을 동시에 전개하는 점, 검진 주신자 전원에게 생활습관 행동변용을 위한 건강지원을 실시하는 점 등은, 지금까지의 건강증진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금후의 건강증진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평가된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전면 개방하고, 마스크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에 의하여, 새로 시작된 건강증진 정책은 국민전체에 빠른 시기부터 넓게 알려져 있어, Population Strategy로써의 Population Approach는 일정수준 달성 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 생활습관 행동 변용의 지도가 가능한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 등, 정책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또한, 건강한 생활습관 행동을 쉽게 하게하는 건강지원 생활환경, 건강한 생활습관 행동을 계속하기 쉽게 하는 건강지원 생활환경은 어떠한 환경인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전략적으로 어떠한 생활환경 조성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본 강연에서는, 새로 시작된 일본의 건강증진 정책의 배경, 목표, 내용을 소개하고, 남겨진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